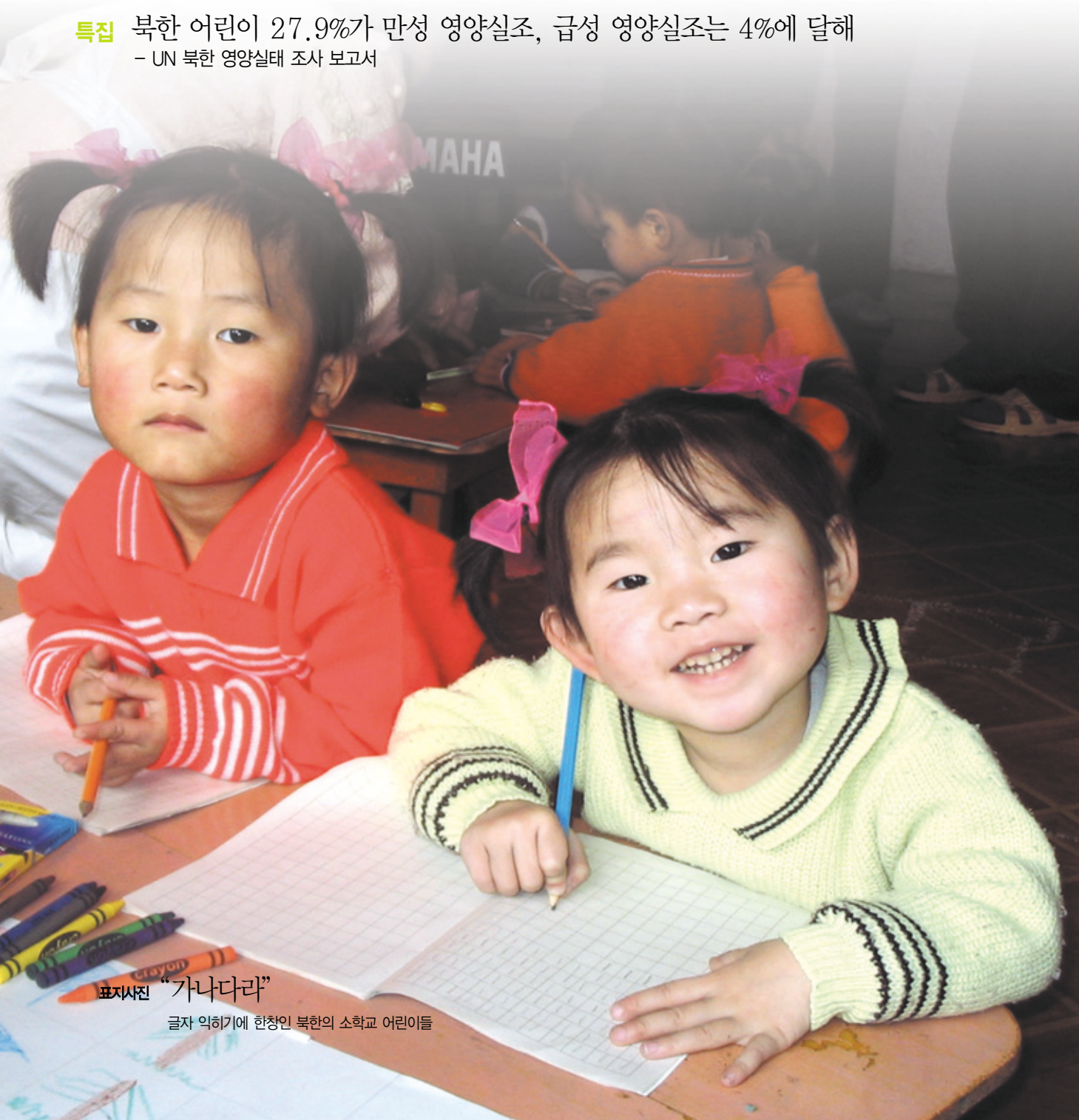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3 봄호 통권 제81호 www.ksm.or.kr

특집 북한 어린이 27.9%가 만성 영양실조, 급성 영양실조는 4%에 달해
- UN 북한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



표지사진 “가나다라”

글자 익히기에 한창인 북한의 소학교 어린이들



개성공단에 봄은 오는가

4월 26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 철수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3일 오후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7명이 모두 귀환하면서 남북경협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된 이래 9년 만에 텅 빈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마지막 끈이 되어오던 개성공단 가동 중지라는 지금 한반도 현실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평화는 목표이면서 동시에 수단'이라는 평화연구의 대가 요한 갈통의 말이 무색한 시국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봄날은 언제 다시 올까요?



목차

- 화보** 03 개성공단에 봄은 오는가
- 권두언** 04 바로 지금입니다
- 인터뷰** 06 가족으로 만난 수명산교회 사람들 - 구원보다 구명(救命)이 먼저입니다!
- 특집** 08 북한 어린이 27.9%가 만성 영양실조, 급성 영양실조는 4%에 달해
- 사업보고** 11 북한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 12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 - 좋은 도서관, 좋은 사서교사가 만듭니다
- 14 2013년, 불고그라드 - 고려인동포 교류협력 사업은 진행형입니다
- 15 경기도교육청 기금전달식 개최 - 모아주신 기금 값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16 "한반도 위기와 전망"을 주제로 제55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열려
- 사업일지** 18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후원자명단** 19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3년 봄호 통권 제81호 | 발행인 |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13년 5월 20일
 | 주소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교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손진우, 원혜영, 윤장현,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전정희, 정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바로 지금입니다

강영식 사무총장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지난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영양 상황을 조사한 후 지난 3월 공개한 '2012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은 27.9%, 급성 영양실조는 4%를 기록하고 있는 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다면 자강도, 함경도, 량강도와 같은 취약 지역은 그 비율이 '매우 높음(very high)' 수준에 이른다

지난 5월 3일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남측 '최후의 7인'이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철수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텅 비어버리고 기약 없는 가동 중단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남북관계의 모든 통로가 단절된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 단체의 결핵약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국제 NGO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 남북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 한건의 공식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출범 두 달여를 막 지난 박근혜 정부로서도 현재의 상황이 달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기에 현재의 남북관계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프로세스를 대담하면서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인도적 대북지원의 재개를 통해 새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를 남북 간 신뢰와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철회하고 민간의 자율과 책임하에 대북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인도적 대북지원의 수준을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으로 되돌림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공약한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라는 방침을 선제적이고 조건 없이 이행한다면 북에 대한 새 정부의 신뢰구축 의지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은 왔지만 북한 동포들에게 그 봄은 '보릿고개'라는 힘들게 넘어야 할 잔인한 봄일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지원은 몇 년간 중단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또한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이어졌던 우리 민간단체들과 종교계의 지원도 작년 말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4월부터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 질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없다면 북한 주민 약 280만 명은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식량 부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지난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영양 상황을 조사한 후 지난 3월 공개한 '2012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은 27.9%, 급성 영양실조는 4%를 기록하고 있는 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다면 자강도, 함경도, 량강도와 같은 취약 지역은 그 비율이 '매우 높음(very high)' 수준에 이른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지만,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외면 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굶주림에 고통 받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실천은 여전히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인도적 과제입니다.

특히 꼬일 대로 꼬여있는 바로 지금이 다시 인도적 대북지원의 불씨를 살릴 때입니다. 

‘가족으로 만난’ 수명산교회 사람들 구원救援보다 구명救命이 먼저입니다!

김효정 홍보편집위원장

이번 호에는 “BaBoi 희망이다”에 후원해 주고 계신 수명산교회 교인들을 만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가족 같은 끈끈함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그곳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쁜 꽃잎이 바람에 살랑이는 봄기운이 완연한 일요일,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수명산교회를 방문했다. 멀리 수명산 자락이 나지막이 보이는 좁고 한적한 길을 따라 어느 조용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다다랐다. 침탑의 높은 십자가를 찾던 중 주위를 둘러보고서야 건물 한 칸에 위치한 교회 간판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상가건물 4층의 작은 공간이 수명산교회의 보금자리였던 것이다. 분위기가 여느 교회와 사뭇 달랐다. 마치 강의실처럼 책상과 의자가 함께 놓여있고, 교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도 웅장한 피아노도 없는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예배 중간에 열 분 남짓한 아버지 중창단이 성가대를 대신했는데 무게감 있는 화음으로 큰 울림을 전해주기도 했다. 마치 우리가 방문한 것을 축하라도 해주듯 말이다.

우리가 교회를 찾은 날은 마침 수명산교회의 열번째 생일날이었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손님들이 여럿 있었고, 이들과 함께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점심식사를 하면서 선교부장님과 몇몇 부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김덕훈 선교부장님께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에 참여하게 되신 동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올해 겨울 몹시 추운 어느 날 퇴근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를 할까 하다가, 너무 추워서 잠깐 망설였어요. 그 순간 여기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북한 동포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러곤 그냥 발길을 집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한겨레신문에 실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 강영식 사무총장님의 인터뷰 기사(1월 9일자)를 보았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은 미룰 수가 없는,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라는 인터뷰를 보고 다음 날 바로 <우리민족>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도 방문해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보니 믿을 만한 단체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도와야겠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광고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북한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아끼는 정성스런 마음들이 많아 <우리민족>과 교회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맺는 선교부장님의 표정에 따뜻함이 물씬 느껴졌다. 선교부장님과 뜻을 함께 하는 부원님들의 노력으로 서른 다섯 분의 교인들이 개인후원자로 북한 어린이 돕기에 참여해주었고, 한 차례 특별헌금을 통해 만들어진 후원성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북한 어린이에 대해 선뜻 후원해 주신 교인들의 모습에서 평소 교회 분위기가 금금해졌다. 그러자 강민수 선교부원님께서 “우리 교회는 ‘북한선교기도후원단’을 결성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긍정적으로 동참하며 협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낙태반대운동도 교회차원에서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수명산교회와 교인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야말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끈 역시 놓치지 않고서 말이다. 현재 그들과 함께 잘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보다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수명산교회 선교부원 모두는 또 흐뭇한 웃음 뒤에 감춰진 단호한 결의를 지어보였다.

북한 어린이와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이은미 선교부원님은 말씀 중에 눈물을 글썽인다. 북한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그 마음만은 이미 북한의 아이들에게 닿아 있는 듯하다. 박영미 선교부원님은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휴전선 반대편의 포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의자도 없는 작은 예배당에서 10주년 기념일을 자축하며 교인끼리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행복이란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 우리 주변엔 워낙 큰 교회들이 즐비하니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찌보면 초라할지 모르나 가족과 같은 끈끈함으로 꽉 들어찬 느낌이 있었다. 이곳저곳 인사를 나누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으나 손사래를 치신다.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때서야 수명산교회가 평신도 위주로 운영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다시금 좋은 사람들이 두루 모인 참 좋은 교회라고 느꼈다.

나중에 다시 교회에 방문해 전 교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실상과 <우리민족>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 선교부원님들께 불러주시면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교회를 나섰다.

따뜻한 봄날, 내 마음에도 따사로운 봄바람이 분다. 수명산교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자신을 돌아본다.

구원(救援)보다는 구명(救命)이 먼저라는 김덕훈 선교부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예배 마지막에 함께 부른 노래를 흥얼거리며 버스에 올랐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두 손을 잡고 함께 가 ~♪”



북한 어린이 27.9%가 만성 영양실조, 급성 영양실조는 4%에 달해

–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태

손종도 평화나눔센터 / 정책팀 부장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북한의 중앙통계국(CBS)과 실시한 북한 영양실태 조사의 최종 보고서가 지난 3월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상황은 과거에 비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급감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들의 영양 상황은 어떻게 변해 갈까요? 유엔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의 영양 상태와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유엔은 이번 조사에서 5세 미만 어린이의 27.9%인 47만 6천여명이 만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9년의 32%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만성 영양실조의 이러한 발생 비율은 WHO의 4단계 평가 기준 가운데 하위 두 번째인 중간(medium) 수준에 해당합니다. 만성 영양실조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낮은 수준에 속하며 30~40%는 높음, 40% 이상은 매우 높음으로 분류됩니다.

북한 어린이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강도, 함경남도, 양강도는 높음의 수준이며 그 중 양강도는 매우 높음의 수준에 가까워지

고 있습니다. 평양과 양강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비슷한 만성 영양실조의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의 공중 보건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만성 영양실조가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만성 영양실조 즉 성장 실패와 같은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어린이의 성장 저해는 그들의 학습 능력과 어른이 되어 발휘할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대간에 나타나는 발육 저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은 신장과 저체중의 여성은 작은 신장의 저체중 아기를 낳을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질병의 반복과 다양하지 못한 질 낮은 음식 섭취의 악순환에 노출된 신생아 또는 영아들은 성장부진에 시달릴 위험이 큽니다. 발육 저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의 창(The window of opportunity)' 시기는 임신 때와 생후 2년 이전을 합쳐 약 1,000일간의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2살 이후에 성장을 따라잡기란 매우 힘들며 어린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만성 영양실조는 2살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북한에서 발육저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을 앞둔 가임기 여성이 임신 전에 그들의 몸을 준비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과 수유중인 여성은 태아와 2살 이하의 신생아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북한, 2012년 10월)

지표	연령	빈도 및 비율	95% 신뢰 구간
어린이			
전체 만성 영양실조(stunting)	0-59개월	27.9%	26.3-29.4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severe stunting)	0-59개월	7.2%	6.4-7.9
전체 급성 영양실조(wasting)	0-59개월	4.0%	3.5-4.5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severe wasting)	0-59개월	0.6%	0.4-0.7
저체중			
낮은 상완위(MUAC) (<125mm)	0-59개월	4.1%	3.6-4.6
빈혈			
모유 수유의 초기 시작	0-23.9개월	28.1%	26.2-30.0
오직 모유 수유만	0-5.9개월	68.9%	65.1-72.8
적절한 시기의 이유식 도입	6-8개월	66.0%	61.4-70.5
섭취한 식품군의 평균 숫자(최대 7개 식품군)	6-23.9개월	2.5%	2.4-2.6
최소 식품 섭취 다양성(7개 식품군 중 4개 군 섭취)	6-23.9개월	26.5%	24.0-28.9
임산부			
낮은 상완위(MUAC) (<225mm)	15-49세	23.2%	21.9-24.5
낮은 상완위(MUAC) (<210mm)	15-49세	5.3%	4.7-5.9
빈혈			
임신중 최소 6개월간 복합 미소 영양소 보충	15-49세	26.9%	24.6-29.1
섭취한 식품군의 평균 숫자(최대 9개 식품군)	15-49세	3.6%	3.5-3.6
최소 식품 섭취 다양성(9개 식품군 중 적어도 4개 식품군 섭취)	15-49세	49.6%	47.7-51.4

* 상완위(MUAC) : 팔뚝 윗부분의 둘레를 재는 것으로 영양 상태 판정을 위한 중요한 측정이다.

급성 영양실조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어린이는 전체의 4%인 6만 8천여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만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급성 영양실조 비율 4%는 WHO의 기준에 따르면 '괜찮은(acceptable)'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양강도와 자강도는 '형편없는(poor)' 수준의 범주에 들어가며 평양은 가장 걱정없는 수준입니다.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5%대 또는 그 이하의 수치를 보여주며 자강도와 양강도는 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빈혈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헤모글로빈의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린이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11g/dL 이하일 경우,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12/dL일 경우에 빈혈로 판정됩니다. 빈혈의 주요한 원인들은 식이에서의 철분 결핍, 말라리아나 구충 감염으로 인한 감염 질환, 다른 주요한 미량영양소의 부족(엽산, 비타민 B12) 등입니다. 그러나 철분의 결핍이 빈혈 발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빈혈은 출산전후(주산기) 사망의 확률을 높이고, 산모의 사망

를 높이며, 어린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늦추거나 손상시키고, 성인기의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북한의 경우 빈혈의 발생은 다른 나라의 24개월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6-23.9개월의 어린이들에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충분한 모유 수유와 질 낮은 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식, 그리고 불충분한 보충식 섭취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성 영양실조의 아동들은 정상 아동에 비해 상당수 빈혈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급성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빈혈 발병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

유아사망률 예방에 모유수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유수유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생아 친화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10개 도 지역의 산원들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군 또는 리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최선의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모들뿐만 아니라 의사와 조산사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영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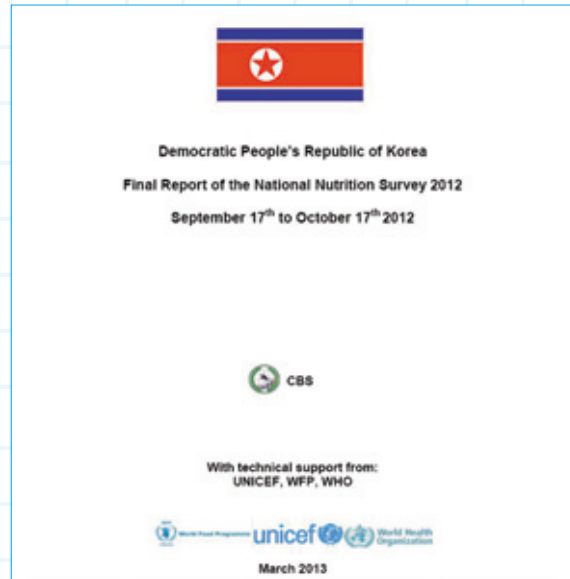
비록 북한 여성들의 영양 상태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임산부의 상태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와 비슷합니다. 상완위(MUAC)가 210mm에 미치지 못하는, 즉 만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임산부의 비율은 5.3%이고 빈혈은 31.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의 영양실태 조사와 2004년의 영양 평가를 비교하면, 영양결핍과 빈혈 수치에서 약간의 감소가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산모의 빈혈 발병률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사에 참여한 적은 수의 임산부들로 인해 임신 상태에서의 차

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혈 발생 때문에 임신 초기 여성의 철분 및 엽산 공급, 복합 미량영양소 공급 또는 산모와 수유모의 강화식품 소비가 권해지고 있습니다.

제언

새천년개발목표(MDG)의 1번(빈곤 감축)과 관련하여, 만성 영양실조와 급성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저체중 발생을 줄인 것은(1998년 조사 당시의 60.6%에서 이번 조사 결과 15.5%) 농업과 식량 안보, 기초의약품, 면역, 영양,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 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영양실조의 원인들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유엔 기구, 북한에서 활동하는 다른 파트너들이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양실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저체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임신 부들의 적절한 영양 상태와 어린이들의 최선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만성 영양실조와 급성 영양실조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된 개입이 필요합니다. 



북한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 표지



북한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영재 기획홍보팀 간사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의 나눔의 마음을 온전히 잘 전달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포근합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긴 했나 봄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2012년 북한 영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은 4명 중 1명꼴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국경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을 이 시기에 춘궁기를 맞이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건강 상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상하기 두렵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봄은 여전히 겨울 같은 '추위'를 이겨내야 할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aB이 희망이다'를 통해 모아주신 후원자분들의 성금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량으로 전달됩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에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춘궁기를 맞은 북한 어린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잘 커갈 수 있도록 후원자 분들의 나눔의 마음을 온전히 잘 전달하겠습니다.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 좋은 도서관, 좋은 사서교사가 만듭니다

홍상영 사무국장



중국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가 실시되어 많은 배움과 아쉬움 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9박10일간 진행된 이번 초청연수에는 리순복(룡정시 북안소학교), 신미선(연길시 중앙소학교), 박선자(화룡시 신동소학교), 심철성(훈춘시 제4소학교), 총 4명의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연수 첫날 우리민족 사무실에서 도서관 지원사업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이틀간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운영 실습, 학교 도서관 운영계획서 만들기, 독서행사 참관, 그리고 이를 위한 사서교사의 역할 등을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며 서로 이야기도 하고 사서교사에게 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자유로운 모습은 이들 선생님들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정숙이라는 두 글자가 벽 벽마다 붙어 있는 보통의 도서관에 익숙해 있던 조선족 교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교육은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서 분류와 배가,

자료정리, 책 읽어주기, 도서관리 프로그램 체험하기, 청소년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교육 지도 등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도서관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못내 부러워했습니다. 중국 조선족소학교 도서관이 앞으로 그러가야 할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번 9박 10일 초청연수 교육프로그램은 조선족학교 도서관이 다가오기 편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바로 각 학교 도서관 담당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학생,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부담 없이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름난 상탄초등학교와 느티나무도서관을 연수지로 정해 그 곳의 운영방식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에게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학교현실과 운영체계가 같지않아 중국 조선족학교의 현실에 맞는 도서관 운영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교환을 통해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운영방식의 혁신을 꾀할 것입니다.

도서관을 짓고 한글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도서관 지원사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조선족학생들이 새 단장한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기고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노력이 더욱 실질적이고 값진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조선족소학교 사서교사 초청연수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며칠 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학습하였습니다. 상탄초등학교에서 지낸 이틀간 연수참관을 통해 김주남 사서교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사서교사란 명칭도 알았고 사서교사의 사업내용과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서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서교사란 단순히 도서관 관리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아이들의 발전에 유리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갖가지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을 분류하고 진열하는 방법도 배우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책을 읽어줄 때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만 해보니 재미있고 호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잘 읽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앉아서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도 들었습니다. 또한 저녁에 청소년 독서 동아리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한국 어린이들이 어떤 호기심을 갖고 우리아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입으로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인상 깊은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돌아간 후 여기에서 배우고 느낀 것, 우리한테 확실히 필요한 것은 많이 소개를 하고 이용하여 우리 학생들도 도서 속에서 재미를 얻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 제4소학교 교원 심철성

드디어 조선족학교 선생님들과의 첫 대면! 밀려드는 부담감에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긴장도 풀리고 집중해주는 선생님들의 눈빛에 목소리는 더 커지고 어느덧 연수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세계 책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과 이러 저리 큰소리 내며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 온갖 질문 공세에 정신없는 사서교사, 사서교사를 도와 행사를 진행해 주는 도서도우미 아이들, 마치 시장통과 같은 이 도서관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역시 활발히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국 학생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학교로 돌아가 도서관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할지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분들에게는 사서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지만 평가가 없는 편안한 수업이기에 일단 도서관 수업은 부담 없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내 재미있어 하십니다. 아이들이 책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니 고

개를 끄덕하십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은 겉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운영하는 사서교사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 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부담 갖지 말고 현재의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하나씩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찾는 학교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탄초등학교 사서교사 김주남



2013년,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교류협력 사업은 진행형입니다

이복철 해외사업팀 부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왜 러시아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 지도 모르는 산을 오릅니까?”라고 산악인 조지 말로리에게 물으니 “그곳에 산이 있으니 오릅니다.(Because it is there)”
러시아는 원유가격의 안정적 고평행진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러시아 인구의 0.15%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의 고려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격차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러시아 고려인(재러동포)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도 고려인동포 교류협력 사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글문화교실!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3년 GO~! GO~!

2005년부터 운영된 볼고그라드 한글문화교실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으며,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보냈습니다. 한글문화교실은 고려인, 러시아 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유학을 온 다른 나라의 학생들까지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는 곳입니다. 한류의 바람을 가장 느끼는

곳인 셈이지요. 또한 여러 청년학생들의 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교실은 현재 시정부 소유의 건물 지하실을 임대해 사용합니다. 낡은 건물이고 지하실이라 물도 새고 냄새도 많이 나는 등 여러모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지의 물가상승과 지원의 한계 등으로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의 고려인문화센터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지역사회 연대활동 - 2013년 대구대 봉사단 파견

볼고그라드 고려인은 이곳으로의 이주역사가 짧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최근에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의 연대는 약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동포 위상은 높지 못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1년부터 고려인 축제와 지역문화 활동의 참여, 다양한 교류활동과 지원사업을 통해 동포사회의 연대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고려인 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미래세대간의 교류와 친선을 넓히는 활동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대구대학교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볼고그라드 현지를 방문해 고려인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류·연대활동을 진행합니다. 대학생들이 볼고그라드 현지에서 하게 될 활동들은 한글교육, 사물놀이 등 우리문화 강습, 태권도 전수, 미술활동 및 고려인동포 농촌일손 돕기 등입니다. 현재 우리민족과 대구대 학생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전달식 개최 모아주신 기금 값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기획홍보팀 간사



“나비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짓이 훗날 폭풍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인데요, <현 교과서 수거 기금전달식>이 열린던 그 날 우리는 그 뜻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기부한 현 교과서 몇 권이 일 년 뒤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급식이 되고, 책이 되고, 도서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실 안에서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낳을지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4월 18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김선희 경자협 공동대표, 그리고 초·중·고교 학생대표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 교과서 수거 기금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금전달식은 현 교과서 수거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1억 1천여만 원은 경기도 내 1,500여개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의 현 교과서 기부를 통해 조성됐습니다. 현 교과서 수거사업 시행 일 년 만에 해

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값진 기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지원사업은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배려와 나눔의 바른 인성 함양,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이어 감사말을 전한 최완규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배운 책을 내 놓으면서 북한과 해외의 한민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의 분야와 내용도 넓히고,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도 제고하자는 말씀을 두 분 모두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현 교과서 수거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실 지원,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입니다만 연변 화룡시 신통소학교가 작년 10월에 개관을 하는 등 자그마한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고려인 한글문화학교 운영비로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교과서 수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을 소개하는 기회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업으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열심히 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와 전망”을 주제로 제55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열려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간의 대화 필요

손종도 평화나눔센터 / 정책팀 부장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전원 철수가 이뤄진 가운데 최근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제시하는 정책 포럼이 지난 4월 26일(금) 저녁에 열렸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제55회 정책포럼에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위기와 전망: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백학순 위원은 우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미국은 최근의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 B-52 폭격기 등을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위협은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 차원

에서 이러한 초대형 폭격기를 훈련 과정에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곧 핵우산에 대한 약속을 한국과 미국에 보여주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가치인데, 비핵화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위원은 또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음모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으로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며 특히 최근 ‘피벗 투 아시아 (Pivot to Asia, 2011년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이 외교잡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시대 라는 기고를 통해 선언한 내용으로,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집중해 온 미국이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뜻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많은 무기를 한국에 파는 것도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미국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군수산업이 미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음모론적인 가치들도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게 백위원의 설명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가치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이라는 현

실이 현재 미국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백학순 위원은 이에 더해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이로 인해 이전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부시 정부가 지키지 않았으며 일본의 대북 정책도 고이즈미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 하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백학순 위원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침 정책포럼이 열렸던 4월 26일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의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백위원은 “우리 정부가 4월 초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기싸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가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기존 프레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4월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회담을 제의하면서 답변 시한을 두고 중대조치를 언급한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사 중대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초 이후에나 할 수 있는데 회담 제의 하루 만에 급히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개성공단 잔류 인원의 철수 결정은 공단 폐쇄를 의미하는 초강수”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종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답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기싸움’ 프레임, 즉 치킨게임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통령이 대북 파트너인 김정은 제1비서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와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백위원은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보수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보수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시민단체들이 일상적인 옹호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날 백학순 위원 발표의 기초 자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www.ksm.or.kr)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Columns include names, amounts, and categories. Includes sections for '블로그그래프', '봉사유아원', and '1월'. Donors listed include individuals like 김진수, 박민숙, and organizations like (주)대우퍼마켓, (주)이비클러스.

후원자 명단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olumns include names and donation values. Includes a highlighted section for '2월' (February) donors.

자전거로 민통선을 달린다!



자전거투어



매월 넷째주 일요일 (월1회)

참가인원 | 300명 이내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파주 특산 농산물 제공)

신청기간 | 매월 첫째주 ~ 둘째주 접수 및 문의 | www.gto.or.kr / 031-952-7805